

# 황정민 “말로 하는 액션 어려워 자괴감 느꼈다”

## 대북 공작원 ‘흑금성’ 실화 첩보영화 ‘공작’ 8일 개봉

“말로 하는 액션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 안 했죠. ‘대사 외워서 하면 되겠지’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이리거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괴감을 느꼈죠”

배우 황정민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천만 배우 중 하나다. 연극 무대와 뮤지컬, 영화판에서 잔뼈가 굵은 대로 굵은 그지만 8일 개봉하는 첩보영화 ‘공작’에서만큼은 커다란 벽을 만난 듯했다고 한다.

윤종빈 감독 신작 ‘공작’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풍 조작 사건의 중심에 있던 대북 공작원 ‘흑금성’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실화 첩보영화다.

‘본 시리즈’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대표되는 할리우드식 첩보 액션영화와 달리 실화에 기반을 둔 ‘공작’은 철저하게 액션을 배제한 채 오로지 대사와 심리전으로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린 다.

1일 만난 황정민은 “감독님이 모든 대사가 관객

들에게 액션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애를 먹은 신으로는 처음으로 조선노동당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운(이성민 분)과 만나는 장면을 꼽았다.

“대만에서 촬영했는데 그날 저하고 성민이 형 모두 굉장히 힘들었어요. 찍고 나서 자괴감에 빠졌죠. 솔직히 배우끼리 힘들다는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 이후로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성민이 형한테 힘들다고 하니가 성민이 형도 ‘너도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공작’의 ‘말로 하는 액션’은 천만 배우 황정민조차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난도 높은 도전이었지만, 결국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고 밀도 있는 긴장감을 빚어냈다.

황정민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분명 싸움 안 하고 피도 안 나는데, 더 많은 주먹질을 본 것

같고 더 많은 피가 날자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맡은 박석영은 실존 인물인 ‘흑금성’ 박재서 씨를 모델로 한 캐릭터다. 박 씨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6년간 옥살이 후 2016년 출소했다.

촬영에 들어가기 전 윤 감독과 황정민을 비롯한 배우들은 실제 박 씨를 만났다. 황정민은 그를 ‘눈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저는 사람 눈을 보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 전혀 눈을 읽을 수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서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마치 벽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박 씨는 활동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작’에서도 박석영은 리명운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다. 이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자들이 유난히 NG를 많이 냈다고

“사흘 동안 세트에서 찍었는데 촬영하다 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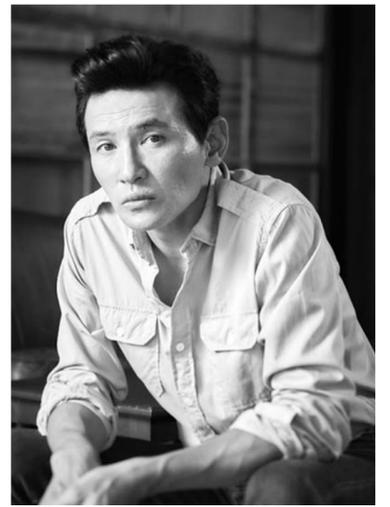
박석영이라는 인물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거기다 공간이 주는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정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면 100% 오줌을 지렸을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든 신으로는 박석영과 리명운이 말없이 연출한 엔딩 장면을 꼽았다.

“리명운이 시계 찬 손을 들어 올리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좋아요. 두 인물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고 화합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크게는 남과 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 하나로 달려온 거니까요”

‘공작’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횡행한 전 정부 때 시나리오 작업이 이뤄졌고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첫 촬영에 들어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촬영을 마쳤지만 당시 북한이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탓에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후반 작업 중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고 4·27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황정민의 감회는 남다른 수밖에 없었다.

그는 “두 정상이 구름다리 같은 곳을 건너며 대화하는 모습이 TV로 나오는데 저희 영화에도 박석영과 리명운이 구름다리를 걷는 장면이 있다. 또 두 정상이 마주 보는 장면이 꼭 우리 영화의 엔딩 같더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몽클함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연립뉴스

# CJ ENM, 공모전 ‘오픈 뮤직’ 개최

## 6개월간 신인 작곡가 데뷔 지원·콘텐츠 출품

CJ ENM이 신인 작곡가의 창작활동과 데뷔를 지원하는 공모전 ‘오픈 뮤직’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 선발 창작자들은 6개월간 작곡·믹싱·제작 등 음악산업 특강, 송캠프,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CJ ENM 음악 레이블과 드라마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콘텐츠를 출품할 수 있으며,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노영심, RBW 대표 김도훈, 걸그룹 여자친구의

히트곡을 쓴 작곡가 서용배, 걸그룹 마마무의 인기곡을 쓴 작곡가 박우상, 미스틱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겸 가수 하림이 멘토링을 맡는다. 창작 지원금과 창작 공간도 제공한다.

‘오픈’ 사업은 CJ E&M이 지난해부터 4년간 총 200억원을 투자해 신인 영화·드라마 작가 데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대중음악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회사는 음악인들이 대중음악 작곡가로 데뷔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선 다양하고 신선한 음악이 필요하지만 히트곡 대다수가 소수 기성 작곡가 손에서 탄생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남궁종 CJ ENM CSV경영팀장은 “올해 사회 공헌사업을 대중음악으로 확대하게 됐다”며 “재능 있는 음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모전 접수는 이날부터 시작하며 총 20여팀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www.open-mus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계적 DJ 카이고 10월 서울 콘서트

## 올림픽공원서...8일 티켓 오픈



노르웨이 출신 세계적 DJ 카이고(Kygo·27)가 첫 번째 내한 단독 콘서트를 연다.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카이고-키즈 인 러브 투어 인 서울’(Kygo-Kids In Love Tour in Seoul)을 연다고 1일 밝

혔다. 카이고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폐막식 무대, 2015년 노벨 평화상 콘서트 무대에 오른 EDM(일렉트로닉댄스뮤직)계 스타다. 작년에는 월드클럽톱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트로피컬 하우스 장르를 이끄는 대표 주자인 카이고의 상업적 성과는 뚜렷하다.

2014년 발표한 정식 데뷔 싱글 ‘파이어스톤’(Firestone)이 노르웨이 차트 1위, UK 차트 8위

에 올랐고 유튜브 5억4,000만 뷰를 넘겼다. 셀레나 고메스와 함께한 ‘잇 에인트 미’(It Ain't Me)는 빌보드 싱글 차트 톱10에 들었으며 엘리 굴딩과 작업한 ‘퍼스트 타임’(First Time)은 아이튠스 14개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정규 2집 ‘키즈 인 러브’를 발표한 그는 동명 타이틀로 월드 투어를 이어간다.

한국 공연 티켓은 오는 8일 정오부터 인터파크, 예스24에서 예매 가능하다. 스탠딩 및 지정석R 11만원, 지정석S 8만8,000원.



# “라디오는 저와 애증의 관계예요”

## 선우정아, 3년 간 매주 수요일 ‘비하인드 투어’ 진행

“새벽 라디오여서 청취자들의 속내가 담긴 사연들이 꽤 있는데,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님이 이런 부담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자리더라고요.”

싱어송라이터 선우정아(33)는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매주 수요일 방송인 ‘선우정아의 비하인드 투어’를 진행한다. ‘애프터클럽’은 7명이 요일별로 DJ를 맡는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으로 선우정아는 3년 가까이 청취자들과 만났다.

선우정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1주일에 한 번인데도 감정 소모가 크다. 하다 보니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비하인드 투어’는 아티스트를 소개하면서 음악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으로 재즈 뮤지션 그레고리 포터부터 록밴드 퀸, 댄싱 퀘스트 브리트니 스피어스, 국내 뮤지션까지 다루는 음악 폭이 넓다.

그는 “‘애프터클럽’ 특징은 DJ가 대본을 직접 쓰는 것”이라며 “선곡부터 오프닝, 내용 흐름까지 DJ가 정하고 마치 셀프카메라처럼 집에서 녹음해 파일을 제작진에 보낸다”고 전했다.

그는 라디오의 의미를 묻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족’에 빗댔다.

“가족이 그렇잖아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지겹다가도 한번씩 사랑의 감동이 큰 힘을 주죠. 제 결혼 6년 차인데 신랑과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이 소중한 것처럼 라디오도 애증의 관계인 거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진행하면서 삶에 감사하게 되고 큰 위로를 얻거든요.”

2006년 데뷔한 선우정아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해 5년간 재즈를 기반으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자리 잡았다. 특히 투애니원과 지디&탐, 아이유 등의 대표곡을 만들며 유명 가수들의 프로듀서로도 활약했다.

연초 MBC TV ‘복면가왕’에서는 ‘레드 마우스’란 이름으로 ‘가왕’에 올라 5연승을 하며 가장 힘을 인정받기도 했다.

# 데이트 폭력 논란 강태구, 명예훼손 소송 제기

## 과거 연인 상대 “허위사실 게재 피해 심각”...메시지·지인 진술 증거 제출

인디 싱어송라이터 강태구(28)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과거 연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강태구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뮤지션 A씨가 SNS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해 심각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강태구는 소장에서 “A씨에게 단 한 차례도 음란 영상 시청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

이 없으며 해어진 이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에게 강요는 물론 그 어떤 폭언도 결코 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사실에 기인한 악의적인 폭력으로 인해 생계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와 연인이던 시기 주고받은 메시지와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3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6년까지 3년 반가량 교제한 강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

해 고통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강태구가 자신에게 음란 영상 시청 등을 강요했으며 연인 관계가 끝난 뒤에도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평소에는 옷차림과 화장,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자며 폭언을 일삼았다고도 적었다.

당시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강태구는 A씨 글이 올라온 직후 데이트 폭력 사실을 부인했다가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올리고 음악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강태구는 4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글에서 나타난 A씨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고려해 억울함을 참으며 상처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었다”며 “하지만 이후 악플러들의 인신공격과 SNS에서 살해 협박을 당하

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사가 꾸준히 생성됐다. 일방적 주장에 의해 삶과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 더 늦기 전에 거짓을 바로잡고 나 삶을 되찾고자 한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